단위프로그램

한 알의 씨앗이 자라 새싹이 되기까지

활동장소	무등산국립공원 증심지구
소요시간	60분(2차시)
참가대상	유치원, 어린이집(7세)
참가인원	20명내외

활동목표	• 씨앗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본다. • 동물응가 놀이를 통해 새싹이 자라는 과정을 알아본다.
준비물	• 씨앗 사진, 클레이 모형(똥, 새싹)
유의사항	• 야외활동 시 긴 옷, 운동화 착용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전달

단계	교육내용	교육시간
도입	▪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조 및 주의사항 전달 ▪ 참여자 몸상태 체크 및 지난 수업 복습	5분
전개	▪ 씨앗에 대해 알아보자 - 씨앗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? - 씨앗이 성장하는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? -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씨앗들을 찾아봐요	25분
	▪ 놀이를 통해 씨앗이 이동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이야기해본다. (놀이) 씨앗의 여행 - 동물응가를 통한 씨앗의 이동	25분
마무리	▪ 생각나누기 ▪ 다음 차 시 프로그램 소개 및 마무리 인사	5분

시나리오

도입

▪ **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**

안녕하세요. 친구들~ 만나서 반가워요~ 잘 지냈나요? 혹시 몸이 아프거나 다친 친구는 없겠죠? 지난 수업때는 숲학교 입학식을 하면서 뱃지도 만들어 보고 수달이랑 사진도 찍었었는데 기억나나요?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씨앗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~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몸풀기 안전체조를 해볼께요~ (몸풀기 후) 자, 이제 씨앗들을 만나러 출발~!

전개

▪ 씨앗에 대해 알아보자

친구들~ 선생님을 봐주세요~(A구간에서 B구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줌) 선생님이 방금 저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죠? 네~ 맞아요. 튼튼한 발과 다리를 움직여 이동을 했죠.

우리 친구들도 오른쪽으로 세발자국 이동해볼까요? 잘했어요~ (씨앗을 보여주며) 그런데 친구들~ 여기를 보세요.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처럼 튼튼한 발과 다리가 없는 씨앗들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? (의견 청취) 맞아요~

몸이 가벼운 친구들은 바람을 통해 날아다니기도 하고, 가시가 있는 씨앗들은 사람들의 옷이나 동물들의 털에 붙어 이동하기도 하고, 또 나뭇가지에 매달려있는 열매들의 씨앗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 배설되기도 해요.

이렇게 많은 씨앗들이 바람에 날리고, 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

네~ 그렇죠. 예쁜 꽃이 되거나 멋진 나무가 되어 자라겠죠~ 그럼 이 씨앗들이 잘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? (의견 청취)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물, 기름진 흙 등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. 우리 친구들도 씩씩하고 건강하려면 절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해요~ 자! 그럼 우리 친구들 놀이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주위에 어떤 씨앗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찾아볼까요? 어때요? 씨앗들을 찾았나요? 씨앗들의 모습이 어떤지, 무게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 수 있겠나요? 네~ 잘했어요

이제 씨앗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놀이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.

▪ 자연놀이 및 체험

- 씨앗의 여행 : 동물응가를 통한 씨앗의 이동

놀이 방법: 팀을 나누어 이동경로를 확인 후 출발 → 이동경로 중간 지점에 있는 똥(모형)을 찾는다. → 찾은 똥(모형)을 다리 사이에 껴서 새싹(모형)이 있는 곳까지 걸어간다. → 새싹(모형)에 똥(모형)을 두고 반환점을 돌아 다시 출발선으로 달려간다. → 다음 주자와 손을 터치!! (주자 변경)



씨앗찾기



씨앗의 여행 놀이 1



씨앗의 여행 놀이 2

마무리

▪ 생각나누기

오늘 선생님과 함께 씨앗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동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놀이를 해보았는데요~ 어땠나요? 즐거웠나요?

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과일을 먹거나, 숲에 오면 다양한 씨앗들을 보게 될 텐데~ 혹시 집에서 씨앗을 보게 된다면 그냥 버리지 말고 부모님과 심어보는건 어떨까요?

우리 친구들~ 오늘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~

다음 시간에는 무등산국립공원 올림픽이 열릴테니 밥 잘 먹고 손발도 잘 씻고 잠도 잘 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~ 친구들 안녕~